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Eternity in the Hearts of Men* 전(Ecclesiastes) 3:1-11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것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Every one of us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our life. That is, we all want to live a significant and meaningful life. We also want to pass down something important through our lives.

또한 우리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영웅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을 경우에 우리들의 ‘영웅’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거나 우리는 꿈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Additionally, we have identified our heroes. Each of us wants to live a significant life, but if we can't, we want to satisfy it through our heroes. If the only purpose of our lives is to eat, drink, or wear clothes, then we are living without a dream. However, if we live with a dream, we can live a meaningful life.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이나 유학을 와서 새로운 인생의 꿈을 꾸며 우리의 영웅을 동경하게 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3:11 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다 영구적인 것을 갈망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What is the motivation to our dreaming of a new life and longing after our heroes by coming to America as an immigrant or an international student? Ecclesiastes 3:11 reads,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 hearts of men.” God has given us a heart that longs for eternity. The fact that He gave us hearts that long for eternity, allows us to differentiate our lives from His other creations.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에서 ‘리빙스톤’이라고 불리는 갈매기는 색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갈매기들은 모두 썩은 고기를 탐식하며 오직 먹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지만, 그는 다른 이상을 갖고 그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은 하늘까지 비행을 합니다. 이 책이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이 책은 우리가 꿈꾸어 오던 것들을 이야기하였기 때문입니다.

In the book *Dream of a Seagull*, a seagull named Livingston lives a life different from all the other seagulls. Other seagulls were greedy when they ate their rotten meat and were only interested in food. However, ‘Livingston’ had different ideals from the others and is often flying in the sky trying to see how high he can go. The reason why this book was a best seller is because this book tells us what we have been dreaming in our lives – trying to go higher.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뭔가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서 타민족으로 살면서 어떻게 이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붙잡고 살 수 있겠습니까?

Coming to the United States and getting to know God is a gift from Him to us. Because of this, we can long for something to pass on to our children. Then, how can we accomplish our dreams as an immigrant or international student here in the U.S.? How can we grasp our hearts for eternity?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First, we should meet the God who is eternity.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We cannot have an eternal life in this world. However, if you meet God – who is eternity – than we can receive eternal life.

성경에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무척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장례식을 보면서 아무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 그를 더욱 힘들게 했고 그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There is a story in the Bible about a young man. Even though he is young, he has many possessions. However, he worries about the fact that he does not have eternal life. He worries that he cannot take everything with him after he receives his burial rites at his death. This makes him very uncomfortable. So he pays a visit to Jesus.

그는 예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인간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3장 앞부분에는 ‘때(시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조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절 할 수 없는 ‘때’를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He asked,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Nobody can answer this kind of question.

The first part of Ecclesiastes chapter 3 is about ‘time’ or ‘seasons’. However, we cannot control the things that happen during this ‘time’. Because of this, we ask God many questions while we’re living in this uncontrollable ‘time’.

철학은 무수한 모순처럼 보이는 인생을 향하여 너무나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을 뿐 아무 근원적인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불교는 이러한 인생들 앞에서 아무런 방법과 대답을 줄 수 없고 그저 끝없는 반복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Philosophers ask a lot of rhetorical questions about our lives which never allow us to reach even fundamental answers. Buddhism cannot give answers to life’s questions; they only tell us that there is endless repetition of our questions. No one can answer these questions except for the almighty God.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동물과는 다른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전체적인 영원한 그림을 보고 난 후에 우리 각자 한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God gave us ‘eternity in the hearts of men’ that is different from his other creations. Once we meet the eternal God, we absolutely will know who we are. We have to reflect on why we ar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Then we will surely understand the meaning of our own lives after we recognize the completeness of our eternal lives.

둘째,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아야 합니다.

Second, to have hearts that long for eternity, we should accept the eternal life that God gives us.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We have to meet God individually so that we can receive eternal life. The purpose of Jesus coming into this world was to give us eternal life.

라이트 형제는 ‘인간은 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포드는 ‘인간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은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The Wright brothers said ‘Flight is possible for man’ and Henry Ford said, ‘Every man needs a vehicle to move conveniently’. However, Jesus is saying to us ‘Man needs eternal life’.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직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어떠한 인간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 분만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Jesus told His disciples about resurrection and eternal life before bringing Lazarus back to life again. Jesus said,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John 11:25-26) There is no one besides Jesus that is capable of making such a statement. Jesus would overcome death and that allows Him to speak from that position.

20억 기독교인들이 신앙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모두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Over 2 billion Christians in the world confess thei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We recited it here just earlier. A portion of it says, ‘... and buried; the third day he arose from the dead...’ If this is a lie, we now believe in a phantom.

공자도 모하메드도 석가도 모두가 그들의 무덤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Confucius, Mohammed and Buddha are confined in their tombs. But the tomb of Jesus Christ is empty. Jesus Christ is the only one who has risen from the dead and has been resurrected.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우리들의 믿음과는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야만 비로소 영생이 가능해집니다.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faith of ours and the faith of other religions? We believe in the living Jesus Christ. Receiving eternal life is possible only if you come to the resurrected Jesus Christ.

이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3 을 보면 우리가 거듭 나야 하나님을 보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How can we receive this eternal life? When we look at John 3:3, it reads,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again." This does not mean that we will receive eternal life just because we attend church or received baptism.

거듭 나는 것은 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에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허락과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거듭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Through our ability it is absolutely impossible to be born again. When we come into this world, it was not our ability. The only way that we can receive eternal life is by power, consent, and the work of God.

거듭 난다는 것은 한 순간에 전혀 새로운 삶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거듭 난다는 것은 점차적인 변화 일수도 있고 급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거듭나게 되는 분명한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거듭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To be born again means that our lives are changed wholly to a new life. Being born again could be either a gradual or rapid transition in our lives. At some point in our Christian life, we will be born again. We can receive a new life and be born again by coming to Jesus Christ who was crucified for us. Being born again means that we can go to God as we are.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이 주시는 영생을 받고 그 분이 원하시는 사역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at San Antonio/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Sermon by Pastor Daesub Han/한대섭 목사

All of us should go forward to God. We have to grasp onto Jesus Christ. We have to do what He wants us to do for His ministry after we receive the gift of eternal life. I pray that we are all saved by the grace of Jesus Christ and are blessed with the eternal life that God has given us.